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순천시, 아랫장 일원 지중화 본격 추진



순천시는 7월 중 장평로 아랫시장 일원의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협약자인 한전 및 통신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주 41본·통신주 30본 철거...차·보도 정비 지상전주 철거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

시는 한전과 통신사 분담금을 포함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평로 740m 구간 내 매설된 한전주 41본, 통신주 30본을 철거하고 가로등 40등을 LED로 교체하며 차도와 보도도 동시에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구간인 아랫시장의 특성상 상가가 밀집해 있고 시민들의 이동이 많아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구간별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경제청,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 준공 투자유치 총력

광양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 청장 권오봉)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6월말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총 5,0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2㎢(73만평) 규모로 개발되며, 2015년 10월 1단계 0.49㎢(15만평) 공사가 시작되어 21개월 만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었다.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1단계 부지에 대하여 광양경제청으로부터 처분계획을 승인받

광양시, 이순신대교 주변 거점 관광자원 개발한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주변 해변을 거점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보고회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태균 도의원, 시의회 김성희 부의장, 백성호, 서영배 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중마해안공원~길호대교~금호대교~이순신대교주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중마·금호해상보도교(무지개다리)와 마동체육공원, 와우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달빛 카페촌, 달빛 광장, 선사인 브릿지, 판옥선 전망대 등 24개 콘텐츠 1,32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항만과 빛, 철, 자연, 역사를 스토리로 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와 관계부서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콘텐츠의 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거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순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겐 적금통장이 생겨요”

만 4세까지 매월 5만원씩 '순천아이 꿈 통장'에 저축

순천시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원한다.

기존 3자녀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변경해, 7월부터는 출생아 만 0세부터 4세까지 매월 5만원씩을 최대 60개월 동안 적금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순천아이 꿈 통장' 제도가 시행된다.

순천아이 꿈 통장은 '순천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의 꿈에 저축한다'는 의미로 일시금으로 받는 출

산장려금과는 달리 아이가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금형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다.

단,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그 시점부터 지원되며 만약 전입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꿈 통장에는 시 지원금 외에 본인 추가입금이 가능하지만 적금통장이므로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만약 중도인출을 원할 시 순천시보건소 승인 하에 중도해지 후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 꿈 통장 재지원은

안 된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기간 중 타 시군 전출이나 분인희망 중도해지 등 중단사유 발생시 출산장려금은 중단되며, 전출 후 재전입하더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담당(749-6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명품교육 실현' 밑그림 그린다

화순군은 6월 29일 하니움문화스포트센터 만연홀에서 명품화순교육 실현을 위한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주민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기관 및 단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1부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안) 발표에 이어 2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구충곤 화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운영하되 부족하면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고교공통지원제가 공약 사항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며 "군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반드시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속 정민석 위원은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추진배경 및 경과, 교육여건 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2부에서는 김남순(조선대학

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좌장의 주재로 화순교육발전 TF팀 각 분야별 담당 위원 등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화순군은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군 차원의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여명이 늘어난 60여명의 교육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들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화순교육발전 TF팀 논의를 거쳐 8월경에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순=박순철 기자



나주들노래보존 모내기 체험마당잔치 성료

북암리고분전시관 앞뜰...보존회·학생·주민 등 300여 명 참석

나주문화원(원장 임경렬)이 주최하고, 나주시가 후원하는 2017년 나주들노래보존사업 모내기 시연 및 체험마당잔치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면 북암리고분전시관 앞뜰에서 열렸다.

나주들노래보존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시들노래보존회와 다시중학교 학생들, 주민들 그리고 동강봉추들노래보존회와 주민들, 남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 문화원 회원들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나주들노래는 다시들노래, 동강봉추들노래, 노안학산들노래, 봉황내촌들노래 등 4개 들노래가 전승·보존되고 있으며, 나주문화원이 들노래보존회들과 함께 해마다 시연 및 체험행사 등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은 지난 해 4개 들노래를 나주시향토문화유산으로 신청, 이들 들노래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다시들노래는 1974년 전국민속경연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이미 전국

적으로 최고의 예술성을 가진 들노래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들노래와 동강봉추들노래 소리와 체험마당잔치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면 북암리고분전시관 앞뜰에서 열렸다. 나주들노래보존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시들노래보존회와 다시중학교 학생들, 주민들 그리고 동강봉추들노래보존회와 주민들, 남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 문화원 회원들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나주들노래는 다시들노래, 동강봉추들노래, 노안학산들노래, 봉황내촌들노래 등 4개 들노래가 전승·보존되고 있으며, 나주문화원이 들노래보존회들과 함께 해마다 시연 및 체험행사 등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은 지난 해 4개 들노래를 나주시향토문화유산으로 신청, 이들 들노래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다시들노래는 1974년 전국민속경연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이미 전국적으로 최고의 예술성을 가진 들노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